

목포문학과, 5년연속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시인 조기호와 '문학나들이' 등 프로그램 25명 모집·무료 진행

목포시는 목포문학과이 한국문학관협회 주관 '2023년 문학과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문학과 상주작가 지원은 지역 문인이 문학관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연령대 대상 문학강좌를 진행하고 문학큐레이터로서 활동하는 문학관 활성화 사업이다.

목포문학과는 올 사업비 2억47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2019년부터 문학과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해 온 목포문학과는 문학아카데미, 문학동아리 운영 등 문학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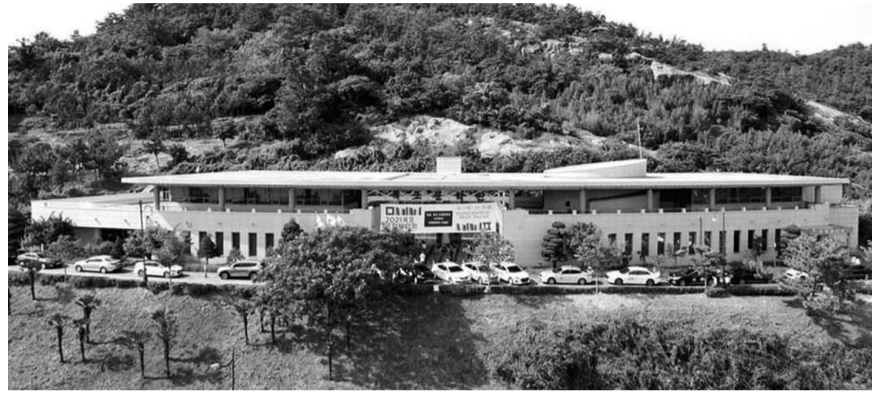
목포문학과는 올해 상주작가로 시인

조기호를 선정했다. 지역에서 창작 및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 시인은 1984년 광주일보와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에 당선된 지역 중진작가다.

동시집 '숨은그림찾기' '반쪽이라는 말' '뽕 뚫어주고 싶다', 시집 '이런 사랑' 등을 냈다.

목포문학과는 조기호 시인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문학관 나들이', '동심으로 돌아오' '동시야 같이 놀자!', '시의 향기를 나누는 명시 산책' 등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인대상 동시창작반 '동심으로 돌아오'는 일반시민 대상 동시 쓰기 프로그램이며 '동시야 같이 놀자!'는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글쓰기 및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이다. '시의 향기를 나누는 명시 산책'은 일반인 대상 명시 감상과 낭송을 통



목포문학과

목포시 제공

해 시를 즐기고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독서동아리다.

상주작가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은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21일부터 목포문학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다. 문의는 목포문학과

(061-270-8400)으로 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 목포문학과 상주 작가로 활동하게 된 조기호 작가가 문학과와 지역민 사이를 잇는 가교가 돼 문학이 지역민의 삶을 치유하고 지지하는 문학의 도시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울틴 품성계발'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 학령기 아동 대상

함평군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울틴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감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함평군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초등 2~4년 10명, 5~6년 10명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8월까지 10회에 걸쳐 집단상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참여 아동은 정직, 배려, 자기조절 등 인성 관련 덕목을 균형있게 익히고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동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 모집 진도군, 31일까지 마감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시설 원예 공동 교육과정으로 농산물 유통과 온라인 마케팅, 현장 코칭 등 총 60시간 운영된다.

대상은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도입 예정인 농업인으로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스마트 강소농 교육생 모집은 오는 31일까지며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자원팀(061-540-6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백재현 기자

여성농업인 대상 재봉틀 기초교육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여성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봉틀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의생활 분야 일거리 창출을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 14명을 대상으로 '재봉틀 기초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20일까지 5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의생활문화관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배운 재봉틀 기술로 폐현수막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실선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 무안군, 납세자 중심 적극 행정

무안군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우편 등 통해 지방세 환급 신청을 받아 왔으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납세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자로 카카오톡에 '무안군 지방세 환급' 채널을 검색한 후 1:1 채팅하기를 클릭하고 채팅창에 환급번호,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군은 환급금 정리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대학생 대상 주so이전 서비스 무안군, 관내 대학교 방문

무안군(군수 김산)은 관내 대학을 방문, 찾아가는 주so이전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목포대와 초당대 등 대학에 일일 전입장구를 운영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전입 지원정책과 함께 무안군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홍보했다.

현재 무안군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무안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관내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별 10만원의 학비 지원금을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대학생 전입 희망자를 위해 찾아가는 주so이전 서비스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관내 전입 대학생들이 무안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왕인축제 기간 '영암요 소성체험' 영암도기박물관

영암도기박물관은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맞아 오는 31일~4월2일 영암요(장작가마) 소성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장작가마 소성은 국가사적 제338호 구림도기가마터 출토 재현품과 응용개발품 등 작품도기를 제작해 국내 최고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림도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다. 장작가마는 나무를 원료로 한 전통적인 소성방법으로 우연적인 효과가 장점이다.

영암요 작품은 4월7일 오후2시 출품할 예정이며 요변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 도기 애호가의 관심이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도기박물관에서는 축제기간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유료)으로 '월출의 달을 굽다'를 운영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작가마 불멍', '소원성취 장작태우기' 등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월출의 달을 굽다'는 21~27일 참여자를 모집하며 '장작가마 불멍'과 '소원성취 장작태우기' 체험은 30일~4월2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진도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진도소방서가 지역사회 안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목표로 상황에 맞는 체험소방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화재안전체험(연습용 소화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화재발생시 대응 요령 △소방장비·차량 체험이다.

진도소방서 제공

강진군, 청년 지역 정착 최대 2000만원 지원

창업 인테리어 비용 등

강진군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최대 2000만원 지원에 나섰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년의 정착 기회 확대와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활성화

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7명 내외의 청년을 선정해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인테리어, 환경개선, 홍보물품 제작, 첨단시설 설치 등 각종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45세 이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4월 13일까지 사업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총무팀)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

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기반 확보를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 2세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청년 안정 정착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장 현장실사 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4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청년 창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강진=김운복 기자

신안군 선진정책, 전국 지방의회 벤치마킹 행렬

5개 시·군 선진지견학

신안군이 전국 지방의회의 선진 정책 견학지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대전 유성구의회, 무안군의회, 서울 영등포구의회 등 5개의 시·군이 신안군을 방문했으며 평택시의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을 찾은 지방의회들은 △버스완전 공영제 △1도 1뮤지엄 △사계절 꽃피는 1004섬 등 신안군 만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퍼플섬 △1004뮤지엄 파크 △천사섬 분재정원 등 관내 대표 관광지 방문을 통해 세계 속 신안군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보였다.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은 "신안군 정책과 명소들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의회 관계자는 "군민들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국내 최초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유제', 어업 소득 활성화를 위한 '개체굴양식'과 '어선 임대사업' 및 관광 개발사업 등을 통해 군민 대변자의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